

丁·鄭·孫, '전대 룰' 치열한 살아싸움

지도체제·전당원 투표제 도입 등 놓고 공조·견제

박주선·전정배·김효석 등 빅3와 연대 움직임 변수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빅 3(정동영, 정세균, 손학규)'가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치열한 살아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 경선 방식 등 전당대회 룰에서 밀리면 결국 선거 패배로 이어지면서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지도체제 문제의 경우 '정세균·손학규(단일)-정동영(집단)'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당권·대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정세균·정동영(찬성)-손학규(반대)'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제 도입은 '정동영·손학규(찬성)-정세균(반대)'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복하고 있어 막판 전당대회 룰에 대한 입장 변화의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지 기반이 겹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 전 대표와 손 고문은 그동안 '연대론'까지 나올 정도로 '반(反) 정동영'을 고리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상황은 좋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룰'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손학규 고문 지지 의사를 밝힌 김동철 의원은 27일 "정 전 대표 측에서 연대설을 흘리며 전선을 흐트리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반(反) 정세균'을 고리로 '손학규·정동영 시한부 연대설'이 제

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당권, 말리는 총선 공천 싸움의 향배가 걸린 조직강화특위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손학규, 정동영 지지 성향 위원들이 합심해 움직이는 정황이 관측되고 있다.

조강특위에 가장 많은 위원을 심어 놓은 정 전 대표 측에 맞서 두 고문이 자과 인사를 심기 위해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동영 고문과 손학규 고문 이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의원 경선의 틀을 깨고 전당원 투표와 국민참여경선 도입을 놓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빅 3' 진영은 보다 유리한 전대 룰을 만들기 위해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없다는 모습에서 막판까지 확고한 공조 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타 당권주자들도 사안별로 '빅 3'와의 연대 및 협력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막판 전대 룰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박주선, 김효석, 전정배 의원은 당권과 대권 분리는 물론 대의원 경선보다는 흥행을 위해 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보다 개방된 경선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박주선·전정배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를, 김효석 의원은 단일성 지도체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대 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당권 주자들의 사안별 연대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빅 3'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대 룰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주선, 전정배, 김효석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여수 소호동 디오션리조트에서 '2010 의원 연찬회'를 갖고 조오섭·김보현 의원이 각각 6대 의회가 나아가길, 의정혁신 정책네트워크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갖고 토론회를 가졌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원들 전문성·소통강화 특훈

여수 디오션리조트서 의정혁신 연찬회

제6대 광주시의회가 의정혁신에 나선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6대 의회 들어 의원들 간 '의정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그동안 논의했던 각종 혁신방안을 놓고 26일과 27일 이틀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10 의원 연찬회'에서 의정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의정혁신 방안은 ▲의원 정책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및 제도적 개선 ▲시민과의 소통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안 마련과 학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내실화를 꾀하고, 의원 연구모임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 전문가 및 사회단체와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활발히 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예산편성 현실화와 보좌관제 실시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

립과 의회직 신설방안을 전국 광역의회와 논의하는 한편 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도 신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방안, 시정평가서 또는 합동 의정보고서 정기적 제출, 케이블 TV중계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오섭 운영위원회는 간사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고 진정한 민생 생활정책의 실천을 위해 의정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진보세력 정권교체하려면 가치·신뢰 중심으로 연합해야”

광주서 토론회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과 호남정치학회 등이 26일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정치 활로와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2012, 민주진보세력 정권교체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임종인 전 의원, 조정관 전남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민주진보세력이 가치와 신뢰를 중심으로 연합할 것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기초발제를 통해 "민주당의 담대한 진보와 민주노동당의 이정치 대표가 주장하는 유연한 진보는 접합점을 찾아가며 대표적인 연합정치의 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부산 시장 후보가 44%를 득표하는 상황은 가치중심 연합이 뿌리내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전 의원은 "민주당은 2007년 대선 참패 이후 야권지지자들에게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이 부족

했고, 이념과 색채가 없는 당 정체성의 문제와 친서민적 이미지마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특히 민주당 자체 역량이 부족하면 다른 야당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또 2012년 집권을 위해서는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등 7개 그룹의 대표단이 모두 참여하는 '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당내에서의 활발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당과 지지층 간의 민주적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민주당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균 민주당 국회의원, 윤상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대표,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황세연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 야당 인사와 김하림 조선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민주진보세력의 활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대 일반당원 참여폭 확대를”

광주 온 정동영 주장

민주당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정동영 의원은 26일 "힘있는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는 대의원과 함께 일반 당원들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 제일 약체라는 점"이라며 "당이 힘을 키우려면 당내 비중 있는 사람들이 지도

부에 들어가야 힘이 느껴져 이념 박 정권에 맞설 수 있고 제1야당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도체제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며 "당 내 지도체제를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걱정거리인 복지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을 합 의추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이 어려울수록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선은 민주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도부 지도체제에 대해 "민주당의 문제는 역대 야

당 중 제일 약체라는 점"이라며 "당이 힘을 키우려면 당내 비중 있는 사람들이 지도

부에 들어가야 힘이 느껴져 이념 박 정권에 맞설 수 있고 제1야당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도체제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며 "당 내 지도체제를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걱정거리인 복지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을 합 의추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이 어려울수록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선은 민주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동철 “진보 정당은 양념일 뿐 주식은 못 된다”

야권 대통합론 부정적... 논란 예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이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 대해 "고춧가루와 같은 양념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밥이나 김치 등 주식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야권 대통합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6일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내부의 민주연대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개혁세력 통합론'과 관련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과의 정책 연합은 가능하지만 통합은 중도개혁세력의 이탈을 불러 민주당은 일본의 사회당처럼 만년 소수 야당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보정당 진영에서는 통합이나 선거연대 조건으로 호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지분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변화도, 진정한 통합도 아니라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익은 통합 주장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세균 전 대표가 당권을 잡게 되면 이와 같은 인위적 통합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27일 광주시당위원장 추대 문제와 관련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회동과 관련, "강기정, 김재균 의원의 수용 여부를 떠나 일단 광주지역 의원들이 광주시당위원장 후보를 추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www.ctcl.co.kr

까띠끌레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가맹점 및 방문판매 사원모집

●가맹점 입점 조건●
헤어샵, 네일샵, 피부관리샵, 의류매장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가맹점 계약서
- 제품교육이수 - 제품 매입없이 제품 진열
- 카드체크기 - 안정된 수익률 보장 (가맹점 세금부)

까띠끌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디아미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루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판매 및 관리사원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지사방문시 행운 가득 드립니다.

Caticlair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까띠끌레 호남지사 ☎ 0621362-1117 / 010-3608-6394

동상 발크림 출시!!

튼살!! 굵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숭아뼈,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발크림

소매가격 10,000

점포있으신 분, 취급하실 분 무자본 (판매케이스와 발크림드림니다)

유사업종 가계신분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업종 하신분 환영!
절찬리 판매중!!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비의 약초

캐번! 한방에 3일 10일다이어트 3kg-5kg 아랫배 썩 - 굵기압니다!

효과없을시 100%환불
1개월분 5만원 (택배무료배송)

영업딜러모집 1시간 투자 월200만가능, 투잡,겸업가능

취급점, 대리점 및 창업자 모집중!

대박키워드 또는 유독한바이오텍! 검색하세요!

062) 954-5046
010-4624-5046
010-8364-1496

YH 유한바이오텍

GOLFZON New Experience

광주최고 시설 스크린 골프장

각종 이벤트 연중 진행 중!

자이언트 골프존

최타석원비 ☎ 521-0071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된 초대형룸 / 최타석 원비
호텔급 시설과 서비스 / Taylor Made클럽원비 / 500여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제1회 자이언트 동호인 오픈 스크린 골프대회

자이언트 골프존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오픈기념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 대회명 : 자이언트 동호인 오픈(대회번호 #184)
- 기 간 : 8.17(화) ~ 9.27(월)
- 코 스 : 스카이어2 하늘오션(하늘 Out/In)
- 컨시드 : 1.0m
- 바 램 : 보통
- 참가조건 : 골프존 ID로 로그인 하시는 모든 고객님

- 시상내역 (3회 이상 플레이시 적용)
- Stroke play 1등~5등 시상, 총상품 300만원 상당
- 공동순위위 상권없이 전체 5등까지 다수 시상
- 행 운 상 : 50위 이내 등재된 플레이어 중 30명 추천하여 경품제공
- 참가왕상 : 최다 참가자 시상
- 풍 기 상 : 홀등부터 뒤에서 5등까지 3명 추천시상
- 출 석 상 : 10회 이상 라운드 하시는 모든분에게 골프양말 제공
- 휴일왕/왕바트를 수상 고객중 3명 추천하여 보스텐백, 골프모자, 나무티, 아이언커버를 모두 드립니다.

* 참가인하셔도 골프존에서 제공하는 총 4억원의 경품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골프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ggolfzon.com